

[T5.1] Meeting with the EU Delegation

Public Diplomacy in Times of War and Crisis: Values and Norms

공동주최: 한국공공외교학회, 연세-장모네 EU센터

- 날짜: 2024년 11월 29일
- 장소: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504호, 서울
- 참석자: 이연호 연세대 장모네 EU센터 소장, 조현 전 외교부 차관, Maria Castillo-Fernandez 대사, Tamara Mawhinney 대사, 이승근 한국공공외교학회 회장, 김신동 한림대 교수

요약

한국공공외교학회(KAPD)는 EU 장모네 센터와 협력하여 "전쟁과 위기의 시대, 공공외교: 가치와 규범" 세션을 2024년 11월 29일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세션은 연세대 장모네 EU센터 이연호 소장의 진행 아래 진행되었으며, 조현 전 외교부 차관, Maria Castillo-Fernandez 주한 EU대사, 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 이승근 KAPD 회장, 김신동 한림대 교수 등 저명한 패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위기 속 공공외교의 변화하는 도전과 전략을 논의하는 장을 제공했습니다.

조현 전 차관은 지정학적 불안정, 기후 변화, 민족주의 확산 등 긴급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NGO, 시민사회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Maria Castillo-Fernandez 대사는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를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소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Tamara Mawhinney 대사는 캐나다의 공공외교 전략과 AI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서사 형성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권위주의적 영향력에 대응하고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승근 회장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공공외교 활용 방안으로 문화 교류, 지역 통합, 다자 협력에 초점을 맞춘 3단계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김신동 교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외교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 외교를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공외교의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가치와 규범,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다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발표 및 토론

이 연 호 (연세-장모네 EU센터 소장)

- “우리는 공공외교에 있어 도전적인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민족주의가 확산하며, 세속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도전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과 전쟁 위협의 증가와 같은 사건들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외교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이번 세션은 공공외교의 미래를 논의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모색할 수 있는 학문적·외교적교류의 장을 제공합니다.”

조 현 (전 외교부 차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전략적 경쟁, UN의 기능 마비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공공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공외교의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핵심 이슈(기후변화, 안보 등)를 다룰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NGO와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동북아시아 주요국인 중국, 일본, 한국 간에는 역사적 갈등과 민족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공공외교가 필요합니다. 국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적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 유럽 통합이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공외교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 및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과 대화가 중요합니다.”

Maria Castillo-Fernandez (주한 EU대사)

- “중국의 ‘일대일로(BRI)’ 구상은 여러 도전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는 협력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사람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 개선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국가주의를 초월한 장기적인 사고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유럽이 평화 프로젝트로 전쟁을 방지했던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일본, ASEAN과 같은 파트너 간의 전략적 신뢰 구축이 필요합니다. 향후 4년 동안 공공외교를 확대하여 연결성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

- “캐나다는 워싱턴과 브뤼셀 두 가지 공공외교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사를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공공외교는 러시아와 중국 같은 권위주의 정권의 영향을 견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한국이 매력적인 역사적 서사를 만들어낸 성공 사례는 공공외교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매력적인 서사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캐나다는 인공지능(AI)과 소셜 미디어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국내외에서 캐나다의 서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발표 및 토론

이 승 근 (한국공공외교학회장)

- “동북아시아는 NATO나 OSCE와 같은 다자간 협력 기구가 부족해 지역 안보에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공외교는 이러한 격차를 메우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세 단계의 평화 구축 전략이 중요합니다: 1) 문화 교류 강화, 2) 지역 통합 촉진, 3) 다자 협력 체계 구축.”
- “다자 협력 기구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공공외교의 소프트 파워는 긍정적인 관계와 상호 이해를 형성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공공외교는 소프트 파워를 통해 국가 간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여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동북아시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자 협력 기구 설립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역 평화 구축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신 동 (한림대 교수/ 차기 한국공공외교학회장)

- “공공외교는 명확한 정의와 목표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 때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드(THAAD) 사태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 “정치적 갈등 시기에는 대립과 포퓰리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프트 파워와 시민 주도의 문화 외교가 전통적인 하드 파워 접근법에 대한 중요한 대안이 됩니다.”
- “공공외교의 효과를 높이려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민 주도의 이니셔티브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특히 민간 주도의 문화외교와 소프트 파워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혼란기에는 협력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